

# 정 총리, 코로나 안정적 방역 디딤돌 대권 보폭 넓힌다

### 취임 1년...재난지원금 지급 주문·홍수 피해 복구 독려 등 심혈 야당 공세엔 강경 대응...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등 호남 현안 관심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정 총리는 코로나19 관련 안정적인 방역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여러 잠룡이기도 한 정 총리가 이 같은 방역 성과를 디딤돌로 대권행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정 총리는 지난해 1월 14일 취임했지만 취임 1주일째였던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거의 모든 시간을 방역에 몰두해왔다.

취임 초기 정 총리는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국가의 존재는 국민 보호가 1차적 목표다. ‘쌀독의 쌀을 퍼서 나눠주면 좋겠지만 쌀독에 쌀이 없으면 쌀을 팔아서라도 나눠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면서 코로나19 방역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 총리는 광주에 공공의료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꼭 필요하다. 지자체가 그런 노력을 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힘을 보태주는 게 중요하다. 광주시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건의했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광주에 공공의료원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흑산공항, 방사광가속기 재추진, 광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남다른 관심

도 강조했다.

실제 취임 초기에 비 피해가 심했던 섬진강 등지를 직접 돌며 피해 복구를 독려했기도 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에는 3차 재난지원금의 설 이전 90% 지급을 주문하는 등 코로나 19 극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정치 행보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는 분석이다. 취임 초기 정치엔 선을 그어온 정 총리지만 점차 대선이 다가오자 ‘정치인 정세균’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극에 달하자 ‘총대’를 메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동반 사퇴를 건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주장을 직격하고, 야당의 방역 공세에 강경히 맞서고 있다. 소신과 강단이 엮보이는 대목이다.

지역업자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는 등 감성적인 모습도 노출하고, 문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등 ‘친문(친문재인)’ 표심을 향한 구애도 눈에 띈다.

또한 정 총리는 호남에서의 행보도 넓히고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민심과의 소통에도 방점을 두고



취임 1년을 맞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호남 민심의 지지가 차기 대선 도전으로 가는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앞으로 광주-전남지역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호남 민심과의 접촉면을 넓혀간다는

생각이다. 정 총리 측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급격히 진정되는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정 총리의 광주-전남 방문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조

기에 성공적으로 극복된다면 설을 앞두고 호남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서울시장 보선’ 野 단일화 파열음에 與 “해볼만 하다”

### 민주, 다음달 후보 경선 가닥...국민의힘-국민의당 신경전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의 갈등이 깊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속웃음을 짓고 있다. 단일화 여부를 떠나 야권의 밀고당기기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지는 조짐 자체가 선거에 호재라는 판단에서다.

우원식 의원은 14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안 대표에 대해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 그래서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새 정치를 이야기하지만 실현을 해보지 못한 안

대표와 새 정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민의힘의 갈등과 조율, 자리싸움, 이전투구를 한 번 구경해볼 만한 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안 대표로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오히려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관계자는 “안 대표는 여러 차례 큰 선거에 출마해 장, 단점이 다 드러나 있다”며 “우라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갖춘 만큼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경선 일정 확정이 계속 미뤄지

면서 흥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월 말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치른다는 대략적인 일정만 발표한 상태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이상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솔솔하고 외롭다”며 “조속히 서울시장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발표해달라”고 제차 요구했다.

제3후보로 불리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영입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된다. 우원식 의원은 “대안이 없다면 내가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지지율 서울서 민주당 10%p 앞서

### 리얼미터 3.1%p 오른 38.6%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10%포인트 넘게 앞서서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1.6%포인트 내린 31.9%, 더불어민주당이 1.4%포인트 오른 30.7%였다. 이어 국민의당 8.0%, 열린민주당 5.4%, 정의당 4.0%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1%포인트 오른 38.6%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3주 연속 하락하다가 반등했다. 부정평가는 4.5%포인트 하락한 56.4%다. 모름·무응답은 5.0%였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4.7%로 2.0%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24.6%로 4.4% 내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이용빈 “월성원전 여야민관 공동조사단 구성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14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월성원전 터빈 건물하부 지하수 배수로의 고인물에서 삼중수소가 허용된 배출기준보다 17.8배가 높은 리터당 71만3000배 배크롤이 나왔기 때문이다”면서 “한수원은 이를 전량 회수했다는 입장이지만, 고인물이 지하수로 배출됐는지 여부는 아직

까지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출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밝히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순서”라며 “구령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민의힘 “安, 간만 본다”...국민의당 “입조심 해야”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 김중권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3월 초에 단일화를 얘기하든지 그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에 들어오든지 둘 중 하나”라며 “결실하면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엔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안 대표를 겨냥, “단일화 얘기는 안 하고 계속 간만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대표가 단일화 방식 제안 대신 “야권 단일

후보로 승리하자”는 대의만 계속 말하는 것을 두고 ‘간철수’ 오명을 깎집어내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경선 주자들도 ‘안철수 때리기’에 가세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단일화 질문을 “자꾸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정치공학적”이라고 언급,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오신환 전 의원은 이날 ‘안철수의 뒷북 정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민이 어떻게 단일후보를 결정하면 좋을지 안 대표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선거전 초반 안 대표에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국민의힘이 네거티브 구태를 되풀이한다고 맞받았다. 이태규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나 전 의원을 겨냥해 “지난 총선에서 왜 떨어졌는지 반성부터 해야 본인이 나아갈 길이 보일 텐데, 출마 회견을 네거티브로 시작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 대표에게 상처를 줘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에 ‘입조심’을 요구했다.

신경전이 거칠어지면서 양당에서는 공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소모전은 후보 경쟁력을 깎는다”며 “절제는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동구 대인동, 싹 땀**  
(주)신세계오피스텔 H. 010-3605-5000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14평) 오피스텔 허가 有
- ▶ 지하 1층 공사 中,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억
-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조정 가능)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18년 01월 30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나,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15일  
주식회사 대왕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9번길 27 (주월동)  
정산인 신승엽

**분실공고**

분양계약서: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470 무등산자이엔에이올림픽공급계약서 일반사항 분실 74A 106-202  
계약자: 김순자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1년 1월 15일

**산행안내**

1월 24일(일)  
▲광주Kj산악회 1월 24일(일) 당신과함께하고싶은! 북덕유산 향적봉 눈꽃산행, 염주체육관 07:30, 동아병원 옆 07:35, 롯데백화점 07:40, 광주역 07:45, 문예후문 08:00, 비엔날레주차장 08:05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9년

**光州日報**

· **이날**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